

#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3년째 표류

### 실시설계 진행 후 스톱

### 까다로운 승인절차·주민 반발

### 탁상논리식 사업 전략 우려

장흥군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총 120억 원 규모로 확정된 '장흥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겨우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70%)만을 진행한 상황이다.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수립에서 실시설계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승인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 핵심 대상인 장흥읍 중앙로·건산로 일방통행에 대한 상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가 늦어진 것도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장흥읍 중앙로와 건산로 일대에 인도 설치(10억원), 간판 정비(8억5000만원), 누리센터 건립(52억원), 배후마을 특화지원과 역량강화(16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장흥읍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A(68)씨는 "간판정비에만 8억원 이상 투자한 부분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이 현실적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은 "농촌중심지를 지역 잠재력과 고유 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목적은 좋으나 실제 지역특성 및 여건과 상반된 탁상논리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차원의 사업 주도권을 일선 지자체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한다. 미용실을 방문한 유두석 장성군수가 효도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함평 월야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총출동

### 추석 앞두고 어르신 5가구 대상

### 청소부터 배관 작업까지 구슬땀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대장 정정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출동했다.

월야면 복지기동대 대원들은 지난 3일부터 주거취약계층 어르신 5가구를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은 청소부터 도배·장판 교체, 수도 배관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월야면 복지기동대는 민·관 협력체로 20여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집수리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인상 월야면장은 "복지기동대 대원들의 적극적인 재능봉사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며 "덕분에 어르신들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장성군 어르신 4분기 효도권 추석 전 지급

장성군이 효도권 4분기 지급분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배부한다.

장성군은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통합한 효도권을 연간 18만원 규모로 분기에 나눠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2700여 명이며 103개 업소에서 쓸 수 있다.

장성군은 어르신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내달 지급 예정이었던 효도권을 일찍 배부하기로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명절을 맞아 어르신의 목욕, 이·미용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도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시, 공동체 문제 해결사 '주민조직가' 교육

### 오후·저녁반 각 20명씩

### 15일까지 참여자 모집

나주시는 지역 공동체 성장지원을 위한 '주민조직가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을 조직하고 주민자치를 촉진하는 인재인 주민조직가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오후반(14-17시)·저녁반(18시30분-21시30분)으로 나눠 4회차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주민조직화 개론과 조직화의 역

할', '주민조직을 위한 효과적인 회의운영 방법', '주민조직 활동현장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 '건강한 공동체의 요소와 원리' 등이다.

또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필요성과 주민조직가의 역할과 정체성, 주민회의 기획, 주민모임 관계형성, 공동체성 유지와 건강한 조직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반별 20명)으로 공동체 활동가, 주민자치회·위원회 등 주민 조직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전화(061-337-9921)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담양군 어린이·임산부·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14일부터 어린이·임산부 대상

### 65세 이상 내달 12일부터 접종

담양군이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산부와 만 65세 이상 군민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만 60~64세 군민까지 무료접종을 할 계획이다. 지원 백신은 4가 백신으로 지난해와 같다.

접종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상자별로 구분해 실

시하며, 14일부터는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처음 접종 대상자)와 임산부가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위탁의료기관(담양읍 담양사랑병원, 동산한방병원, 박내과의원, 하나의원, 고서면 한국의원, 삼성의원, 수북면 나눔내과의원, 새하나의원)에서 진행한다.

어린이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회 접종 어린이는 내달 14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은 내달 12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

서 진행하며 보건소 예방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에서 지원하는 만 60~64세의 경우는 보건소에서만 진행한다.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는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임산부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을 고려해 인플루엔자 접종이 중요해졌으며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한 백신 보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화순군 독립유공자 전수조사·DB 구축

### 전남 최초...전남대 연구팀과 용역

화순군이 전남지역에선 처음으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화순군은 전남대학교 연구팀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화순지역 독립운동사 재정립과 역사 문화유산 발굴, 독립운동 정신 계승 등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화순군은 13개 읍면의 독립운동 전·후 상황 실태조사, 독립운동가와 가족 커뮤니티 조사 데이터

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역 역사 문화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한말 의병운동과 동학농민운동, 3.1운동, 국내 항일운동, 계몽운동, 민족교육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등과 관련해 인물, 독립운동 장소, 문헌 등의 정보도 받는다.

화순군은 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서훈도 신청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의 숨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첫 걸음이었다"며 "지역 역사 문화 계승을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납시다

###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